

선재동자는 정취보살로부터 남쪽 타라 발자성(薩羅鉢底城)에 있는 대천(大天)이라고 하는 천신(天神)을 찾아가 법을 물으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 성에 이르러 보니 대천은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고 있었다. 선재동자가 그의 앞으로 가서 예배하고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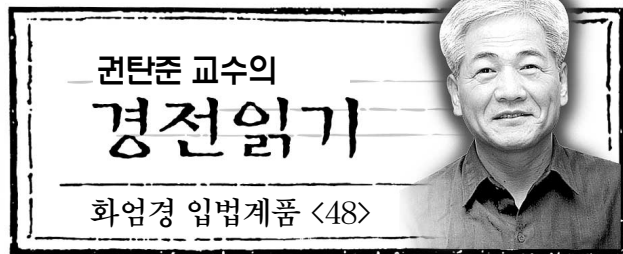
이 때 대천이 네 손을 길게 펴서 네 바다의 물을 움켜져 얼굴을 씻으며 황금꽃을 선재동자에게 흠고 말하였다.

“선남자여, 모든 보살은 보기 어렵고 그 가르침을 듣기 어렵다. 세간에 나오는 일이 드물어서, 중생 가운데 가장 제일이며 사람들 중의 끝다리카꽃(白蓮華)이다. 중생들의 돌아갈 곳이며 중생을 구원하는 이며, 세간을 위하여 평안할 곳이 되고 세간을 위하여 큰 광명이 된다. 미혹한 이에게 편안한 길을 가리키고, 길잡이가 되어 중생을 인도하여 불법의 문에 들게 하며, 법의 대장이 되어 온갖 지혜의 성을 수호한다.

보살은 이와 같이 만나기 어려우니, 오직 물과 밭과 뜻에 허물이 없는 이리야 그 형상을 보고 그 변재를 들으며 온갖 시간에 항상 앞에 그 모습이 나타난다. 선남자여, 나는 이미 보살의 해탈을 성취하였으니 이름이 '구름 그물(雲網)'이다.”

선재동자가 말하였다. “가룩하신 이여, 구름 그물 해탈의 경계가 어떠한가.”

이 때 대천은 선재동자의 앞에서 가지각색의 보배 더미들을 산 같이 나타내었다. 또 모든 꽃 · 모든 향 · 모든 의복 · 모든 음악 · 모든 오락 기구를 산더미 같이 나타내며, 또 수 없는 백천만의 아가씨들을 나타



권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48>

대천신의 법문

대자비로 가르침의 비 내려 중생 교화 고통 벗고 장애 없는 곳 이르도록 인도

내면서, 대천이 선재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이 물건을 가져다가 여에게 공양하여 복덕을 닦고, 또 모든 중생에게 보시하여 그들도 보시바라밀다를 배우고 버리기 어려운 것들을 버리게 하라. 선남자여, 내가 그대에게 이런 물건을 보여 주고 그대도 하여금 보시를 행하게 하듯이, 모든 중생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며, 이 선근으로써 삼보와 선지식에게 공양하고 공경하여 착한 법을 증경케 하고 위없는 보리심을 내게 한다.

선남자여, 어떤 중생이 다섯 가지 욕락을 탐하여 방일하는 이에게는 부정한 경계를 보여 주고, 어떤 중생이 성 잘내고 교만하여 연생을 좋아하는 이에게는 매우 무서운 형상을 보여 주되, 나찰 따위가 피를 빨고 살을 씹는 것을 보여서 놀래고 두려워 마

음이 부드럽고 원수를 여의게하며, 어떤 중생이 흠미하고 게으르면 그에게는 국왕의 법과 도죄과 수재 · 화제와 중대한 질병을 보여서 두려운 마음을 내고 근심과 고통을 알아서 스스로 힘쓰게 한다.

이러한 가지가지 방편으로써 모든 착하지 못한 행동을 버리고 착한 법을 닦게 하며, 모든 바라밀다의 장애를 버리고 바라밀다를 구족케 하며, 모든 험하고 어려운 길을 벗어나서 장애가 없는 곳에 이르러 한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구름 그물 해탈을 알 뿐이다.”

대천이라고 하는 천신이 설하고 있는 ‘운망법문(雲網法門)’은 대자비의 구름으로 일체를 두루 널리 덮어 가르침을 비 내리도록 하여 마치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 올리듯이 중생을 제도하는 법을 설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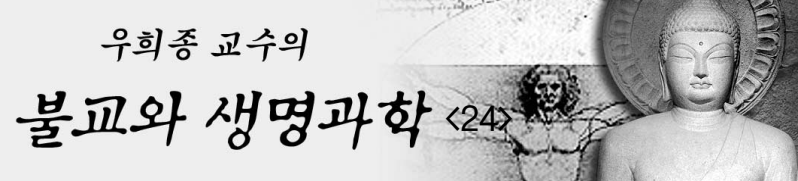
이라 할 수 있다. 선지식이 ‘커다란 하늘(大天)’이라고 하는 이름의 신(神)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수행력이 증대하면서 지혜가 신령스럽게 되어 모든 진실과 그대로 응할 수 있기 때문에 신(神)이라 호칭하는 것이다. 대천은 지혜가 청정해서 어디에도 결함이 없고 의지함도 없다. 무엇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일도 없고 사유하지도 않으면서 항상 모든 것과 응하기 때문에 천신(天神)으로 불리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머무르고 있는 성의 명칭인 ‘타라발자’는 한문으로 번역하면 ‘유문(有門)’이라고 하는 의미이다. 그것은 인위적인 조작이 없는 천신의 청정한 지혜가 세간에 있는 일체의 법문을 나타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법문(大法門)이 있어서 그것으로 중생을 요익케 하기 때문에 명칭이 ‘유문’인 것이다.

보살의 ‘구름 그물(雲網)’ 해탈법문의 내용은 결국 보살의 덕(德)을 예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살은 세속에서 소중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먼저 여에게 공양하고, 또 모든 중생에게 보시하여 그들도 보시바라밀을 배우고 버리기 어려운 것들을 버리도록 한다. 이렇게 하여 삼보와 선지식을 공경 공양하여 선법을 증경토록 하고 보리심을 내도록 한다. 또한 가지가지 방편으로써 출지 못한 험하고 어려운 길을 벗어나서 장애가 없는 곳에 이르도록 해준다.

이러한 보살의 모든 활동이 청정한 지혜에서 자비심에서 바탕을 두고 두루 널리 저절로 넘쳐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구름 그물의 법문’에서 말하고 있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24>

불교적 면역학

생명을 다루는 의학은 외부에서 침입하는 병원체에 대하여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있다. 생각해 보면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는 항생제뿐만 아니라, 비누, 삼푸, 세탁기, 차약 등도 고안해 생활하고 있다. 또한 의학에서 자기 방어에 중요한 개념을 다루고 있는 면역학을 배울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도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이물(異物)과 우리 몸 간의 전쟁이라는 개념이다.

하지만 면역학자로서 나와 외부의 네(미생물)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 수록 이러한 관계는 전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평화로운 공생의 관계임을 알게 된다. 우리의 몸이 외부와 접촉하면서 가장 넓은 면적을 이루고

킨다는 사실이 진정 놀라운 것이다. 결국 인간은 이 지구를 뒤덮고 있는 미생물들 틈에서 살아가기 위해 그들과 상부상조하는 공생의 관계일 뿐이다. 아니 어쩌면 우리 몸이라는 것은 미생물들의 진화 과정 중에 그토록 많은 장내 미생물들이 자신들의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을 얻기 위해 만들어 낸 작품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누가 우리는 미생물들과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아마도 전쟁이었다면 동물이나 인간은 이미 예전에 전멸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들을 죽여 없애야만 내가 산다고 생각하여 항생제다 접촉하면서 가장 넓은 면적을 이루고

모든 생명체는 상부상조의 공생관계 자신에 길들여진 생각 바꾸면 '평화'

있는 것으로서 우리의 장관(腸管)이 있다. 입으로부터 항문에 이르기까지의 면적은 장내의 용모 등의 면적을 고려하여 펼칠 때 축구장 넓이 이상 된다. 우리 몸의 그러한 넓은 면적은 수 많은 미생물로 뒤덮여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1014(백조)개 이상의 세균을 한 사람이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지구상에는 1029개 이상의 세균이 존재한다고 추정되고 있다. 또 화석을 보아도 30억년 이전에도 세균은 이 지구상에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활하면서 약수나 키스 등으로 수많은 미생물을 교환하면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가 일 반적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듯이 세균들이 사람에게 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토록 적은 종류의 세균들이 우리에게 병을 일으

해 별의별 방법을 쓰다보니 그 인과로서 항생제가 전혀 듣지 않는 세균이나, 살을 썬히는 세균, 과거 있지도 않던 새로운 질병(emerging diseases)들이 세계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유마경 불국품에 있듯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분별로 인해 원래의 청정한 모습이 안보이는 것이기에, 참된 의학에서도 자신이 길들여져 있던 한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모습은 전쟁이 아닌 평화와 상부상조의 모습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면역학을 자기(自己)와 비자기(非自己)에 대한 학문이라고 정의했지만, 현대면역학에서는 생체 조화를 깨뜨리는 상태에 대한 반응(Danger theory)이 곧 면역이라는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토록 적은 종류의 세균들이 우리에게 병을 일으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선의 세계 22

견성성불(見性成佛)-9

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처방한다. 물론 각 종교와 사상에서 제시하는 ‘자신의 정체’와 그것을 깨닫는 방법은 각자 다르지만...

예를 들어 기독교에서는 깨달아야 할 자

그러므로 겸손한 피조물로서 조물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절대적인 신앙을 바치며 자신과 세상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는 삶을 살라고 처방한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의 개체로서.

견성하면 그대로 부처

신의 정체란 바로 피조물로서의 정체라고 한다. 인간은 조물주에 의하여 만들어진 존재이지 저 홀로 잘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 자신과 세상의 주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조물주에 의하여 마련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 점을 망각하고 조물주를 배제한 채 자기가 자신과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데 있다.

한편 선(禪)에서는, 지금까지 누차 언급했지만 그 ‘자신의 정체’란 바로 부처라고 선언한다. 선의 표현으로는 진여자성(眞如自性)이라 한다. 그리고 중생이 누구나 각자 갖추고 있는 본래 진여인 자신의 그 정체를 깨닫는 것을 일컬어 견성이라고 했다. 중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을 부처, 즉 보편자가 아닌 일개 중생, 즉 개별자일 뿐

7일 명상으로 원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로드프라나 명상이란?

프라나(감로, 생기) 호흡법과 로드프라나 36가지의 각종 명상법을 통해 몸과 마음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상승시키는 기법.

◆로드프라나 명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 진다

잠자던 몸이 깨어나 몸속에 황금빛 광채가 생기고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원을 이루고 개인 의식이 무너져 우주의식으로 확장되어 집중력, 이해력이 증대되어 지혜의 눈이 생긴다.

▶ 송이 송이 내리는 눈이 판곳으로 안떨어지듯 한번도 자신이 우주 아닌 적이 없었는데 그것을 스스로 작각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틈새가 생겼기 때문이다.

일체를 버려서 무에 들었거던 다시 일체를 끌어안아 자연이 되라. 나 없는 자리를 찾으면 길이 열리고, 나 있는 자리를 찾으면 천문을 열며,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한 자리를 찾으면 표정봉에 오른다.

오기육매공, 선밀공, 프라나호흡, 프라나동작, 36장 관조, 관음법을 통하여 우주의식으로 확장 시키면 스스로 알지 못했던 길을 찾게된다.

길타기 3단계

- ▶ 1단계 : 능력확대 (의식확장, 시, 노래, 춤, 연주, 그림 등)
- ▶ 2단계 : 지혜의 눈 (달반, 예시, 투시)
- ▶ 3단계 : 전인완성 (본래의 자리에 들)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과정)

다른 차원의 세계 (우주세계)로 못기는 것은 의식과 생각을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식 집중을 통해 영혼체 정신체 인 본신을 만들어서 유체이탈을 통하여 천문 제6세계까지 영체와 우주세계를 연결한다.

천문열기

- 제 1세계 (우주세계, 합일신계) → 제 6세계 (우주세계, 자재신계)
-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과정)

명상지도자 양성과정 (1년)

- 자격 : 24세 ~ 34세까지
- 학 력 : 고졸이상
- 수련과정 : 로드프라나 36장, 프라나호흡, 난소호흡, 원륜공, 관조, 관음, 관상법수련, 선밀공, 오기육매공

로드프라나 명상센터 본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1동 729-4
☎ 053)471-0433

순수한 경문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빛을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한자심경 8쪽 명종 후면 달마그림 특별 할인 보급

100% 경문주사로 쓴 반야심경 달마도

2000년 대륙명상 수상작인 운장(스님)의 신품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에서(출처:홍사)

전통반야심경 - 전통시경 전수 무료 직접지도 (매주 금요일)

명상지도자 양성과정 100% 효과

명상의 전화 : (033) 766-0057 FAX (033) 766-0058
www.ungangsa.co.kr E-mail: unjang21@kornet21.net
*오방의 기가 강하게 흐르는 백운산 운장사 원만성취 영험기도도량

● 주문신청방법 우체국 201509-01-002545 운장사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영험기도도량 백운산 운장사
韓 佛 教 藝 術 文 化 院

회사육임도서안내

● 육임재정비법 수정보완본 (전 12권, 부록, 활용법 설명비디오 포함) 2,500,000

● 육임재정비법 350,000

● 육임재정비법 휴대용 310,000

● 각일각시문예언비법(태아 · 결일 · 길시 선정법) 74,000

● 육임신수비결(생명비디오 포함) 300,000

● 육임지각생활비법 10,000

● 길흉삼담지침록 20,000

● 육임재정비법 수정보완본 日語版 ¥272,000 (전 12권, 부록, 활용법 설명비디오 포함)

● 회사 육임강의록 上(학습용) · 下(활용서)권 410,000

● 육임강의 비디오 · CD 900,000

● 육임형이상법 150,000

● 육임운명판단법 130,000

회사 전국육임 直講 안내

● 서울 매주 금요일 「회사속」 02-993-8680

● 서울 강남 매주 토요일 「강남속」 02-525-3039 (비즈니스님 전문학당 청통사)

● 전주 매주 일요일 「전주속」 063-284-7714

● 광주 매주 월요일 「광주속」 062-224-8680

● 진주 매주 화요일 「진주속」 055-755-1644

● 부산 매주 수요일 「부산속」 051-756-0141

● 대구 매주 목요일 「대구속」 053-624-8680

● 오행기초 · 기본을 모르는 분들을 위한 강의 2시간 전이나오셔서 사전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수강료는 일백오십만원이고 교재 회사육임강의록 上 · 下권을 드립니다.

●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는 육임학당「회사속」에서 「문화회실」까지도 강의와 육임서 설명회가 본 강의전에 있습니다.

www.taotemple.net

문의 02-993-8680 / 02-998-8683

입금 계좌 도서주문 : 우리 813-041583-13-101 김명란 도서실 목문 강의신청 : 우리 813-102730-01-001 한국유림학회